

나눔과 전통예술 한마당... 교리 퀴즈, 문화경연 등

제1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 및 제7회 나란다 축제 '성료'

가을비가 남산 산록을 적신 9월 5일 아침, 동국대 캠퍼스 곳곳에는 빗소리 사이로 가야금, 창소리 등 국악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악기를 든 청소년들이 이날 열린 전통예술 경연대회 준비에 여념 없는 모습이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진흥원)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주최로 제7회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불자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한마당을 제공하는 한편, 불교계가 청소년 국악인재 발굴·육성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경연대회는 △성악 △기악 △무용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오전에 열린 예선을 통해 각 분야 4명씩 총 1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연 순서는 분야와 관계없이 본선진출자들이 직접 추천해 정해졌다. 성악 참가자들은 긴아리랑, 산앵벌, 창부타령 등 열창했으며, 기악 분야서는 대금, 가야금, 거문고 등 한국 대표 전통악기들이 선보여졌다. 사물놀이패는 무대에 화려함을 더했고, 화려한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절제된 선을 연출한 무용들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참가번호 12번 김시은(전통예술고 1년·여) 학생은 "민요를 부를 때 가락보다는 가사를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가사를 있는 그대로 느끼면 감정이 더 살아나고, 그로써 가락도 조금 더 구성지게 연출되는 것 같다"며 민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전했다. 또한 참가번호 16번 정유정(브니엘예술고 3년·여) 학생은 '긴 아리랑'을 경연곡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가사와 선율, 기술적으로도 모든 게 마음에 들었다. 또 어려운 곡이라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패기를 드러냈다.

시상은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각 수여해 본선진출자 16명 모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종합대상은 참가번호 7번 강태훈(전주예술고 3년·남) 학생이 차지했다.

느린 템포에서 빠른 템포로 변화하며 흥을 돋우는 곡을 준비한 강태훈 학생은 "전통 악기 연주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5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서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제1회 은정 청소년 전통 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7회 나란다 축제에서 열린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

성악·기악·무용·타악 4개 분야서 각 4명씩 16명 본선행 '전원 수상' 전통예술고 3년 강태훈 대상 '영예'

해 평소에도 즐겁고 신나게 연주하려고 노력한다"며 "짧고 신선한 거문고 연주로 훗날 세계에 한국예술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도 △금상 박소연(성악), 이정제(무용), 유민영(타악) △은상 김시은(성악), 강병하(기악), 김현수(무용), 이보미(타악) △동상 정유정(성악), 천세훈(기악), 강주은(무용), 이정현(타악) △장려상 백승연(성악), 김진희(기악) 유미라(무용), 김영택(타

악) 등 각각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숙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 감독은 "술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표출되는 표현이 아닌 학생들이 가진 순수한 표현에서 우리 국악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국악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아울러 교리 경연 등을 통한 불교 인재 양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제7회 나란다 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란다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기부 동행'이었다. 부문별 참가자 1인이 1 문제의 정답을 맞출 경우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경시대회 및 맨스대회 참가자는 응시만으로도 100원이 자동

적립된다.

'제7회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백일장 및 사생대회 △회화마당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등 6개 마당으로 펼쳐졌으며 금은 날씨에도 3천여 명의 초·중·고등생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본 행사에 앞서 만해광장서 입제식이 거행됐다. 입제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목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법경 스님 등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빛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날"이라며 "부처님 자비심처럼 넓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글짓기와 그림에 임하면 모두가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이해랑예술극장

곳은 날씨에도 3천여 명 참가 초등생 '범종 울려라' 우승 김지현 전통문화 체험 등 행사 '다채'

및 대강전서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나는 누구인가'와 '광복 70주년 나라사랑'을 주제로 열렸다. 다만, 만해광장서 예정되었던 백일장 행사는 우천으로 진행됐다. 또한 나란다 축제의 시발점이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서울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 시험장을 개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했다.

초등생들의 경연대회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 우승자는 김지현(초등부 대회)이다. 김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줄 알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면서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보라매법당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회장 스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북아트나 애니메이션, 놀이를 통해서 쉽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대회서 성과를 보인 것 같다"면서 "우승한 학생은 평소 법회에도 잘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다. 그런 아이가 우승해 지도법사로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준비한 체험마당 부스들이 다양하게 설치·운영됐다.

한편, 군장부 분문 교리 경시대회도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사관생도·경찰대생 부문은 9월 16일 오후 7시~8시까지 해당 학교법당에서 실시됐다.

려라'도 열기가 뜨거웠다. 초등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한 사찰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첫 문제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출제했다. '불·법·승' 삼보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췄지만, 일부 틀린 학생도 있었다. 20여 개의 문제가 지나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다.

마지막은 '부처님께 드리는 약속'인 '발원'을 묻는 문제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회'와 '오계'를 적었고, 단 1명의 학생만이 '발원'을 적어 우승이 결정됐다. '발원'을 적은 우승의 주인공은 보라매법당 어린이 법회에서 출전한 김지현 군(대곡초·5)이었다.

이미 앞선 대회에서도 2번의 장려상을 받았던 실력자였던 김 군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줄 알고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쉬웠다"면서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보라매법당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회장 스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북아트나 애니메이션, 놀이를 통해서 쉽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대회서 성과를 보인 것 같다"면서 "우승한 학생은 평소 법회에도 잘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다. 그런 아이가 우승해 지도법사로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준비한 체험마당 부스들이 다양하게 설치·운영됐다.

한편, 군장부 분문 교리 경시대회도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사관생도·경찰대생 부문은 9월 16일 오후 7시~8시까지 해당 학교법당에서 실시됐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한가위선물 '불교판매점'서 준비하세요!



BTN '산사애' 홈페이지

불교계 추석선물을 판매처

산사애 www.sansae.co.kr	1899-3815
조계종출판사 '승소' www.jogyebook.com	(02)720-1760
인드라마생협 www.shopping.happycoop.or.kr	1600-6215
현불상 www.hyunbulshop.com	(02)2004-8213

산사애, 승소 등 추석선물 출시

시중에 판매 중인 추석선물세트가 유통 기간, 가격격, 품질 등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구매 앞에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만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믿음이 안 간다면 올해는 불교계 판매업체서 추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계 판매업체들이 추석을 맞아 국내산, 친환경 추석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BTN '산사애'는 추석을 맞아 김치 종류를 총망라해 판매하고 있다. 3kg부터 10kg까지 중량별로 전라도 포기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여수 물산자 김치 등을 기호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홈페이지서는 모든 김치 재료 원산지와 제조과정,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냈다. 또한 사찰전통식품품 목록에선 상주 도립사·상선암·영평사·해인사·선운사 등에서 판매 중인 장류와 특산품도 만나볼 수 있다.

승소는 조계종출판사 유통사업부가 운영하는 수익사업브랜드로 '福 선물세트' 11종을 출시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국수·김 혼합세트는 승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품목이다. 국수 6봉에 전장김 5봉, 자반볶음 2봉 등 다양한 구성으로 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감자쫄·골드농축액·건강기능성 음료·진삼·수삼 세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건강 품목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가격대는 2만원~12만 원 선이다.

인드라마생협공동조합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인드라마생협공동체'를 기반으로 2003년 창립대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올 추석을 맞아 선물모음, 차례용품, 주류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택배예약신청도 별도로 진행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편의에 맞춰 과일부터 유과, 식혜, 생선포, 나물 등 차례상 차림을 위한 재료들을 구비하고 있다.

현불상은 기존 추석 선물과 차별화된 물품을 마련했다. 삼베타올선물세트, 밀납양초세트, 썩양초세트, 희담석염주세트 등이 다. 특히 삼베타올세트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원료로 제작된 순식물성 제품이다. 사위타올·세안타올·수세미 등 3종 구성으로 가격은 2만 7천원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法으로 不法없는 사회 수호 '발원'

경찰불교회, 9월 5일~6일 창립14주년 대법회 봉행

대한민국 경찰불교회(회장 허영범, 이하 경불회)가 창립 14주년 대법회를 열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 평화 사회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9월 5일~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로 진행돼 경불회 회원 및 가족 2백여 명이 함께했다. 6일 12시 대웅전서 열린 14주년 대법회는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법문이 진행됐으며,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마가스님의 자비명상도 실시됐다.

경불회는 "사회 평안과 안정을 위해 전국서 활동 중인 경찰불자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 사회 활동을 펼쳐가길 바란다"며



경찰불교회가 9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14주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외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 한 사람 한사람이 밝아지면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라 서원했다.

박아름 기자

불행

초대합니다

화순동북 모후산 도원사 개원 11주년 기념 1080연등불사(불자노래자랑)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6회 산사음악회**

연등은 광명의 등불이요, 지혜는 무명을 밝히는 의미이고, 등불을 밝히는 진정한 의미는 탐,진,치 삼독심을 씻고, 업장소멸과 재앙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권선공덕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 ◆ 1부 : 내외귀빈 축사, 장학금전달식(소년 소녀 가장), 공로배 증정
- ◆ 2부 : 문화공연, 신도 노래자랑, 경품추첨 (푸짐합니다)
- ◆ 3부 : 공연 - 사회(서복식), 특별출연(현진우, 온희정, 평양예술단), 초청가수(정현, 정주호, 박동운, 이진숙), 모후산 난타

- ◆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요일) 오후 3시
- ◆ 장소 : 모후산 도원사 야외음악단

1인 1등 일만원 / 접수 : 9월 30일까지 (바쁘신 불자님은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 행사장 오시는 길 : 화순군 동북면 한천리 한천농악 전수관 (내비지도 오십시오)

-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전남교구 총무원
- 협 찬 : 선각종 전국교구본사, 불교TV 광주방송, 호남일보, 현대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삼천불교봉사, 광주사랑모임, 영진골재중기(화순읍), 신세계약국, 한일리모텔링, 금호타이어, 한우공방, 금강민물식당, 금성식당, 우진관광, 동북하나로마트, 매실내떡방앗간, 사평맛고을식당, (주)천하산업, 해남 장성 제재소, 방생회, 신도일동, 스님모임 달마회

대한불교선각종 전남교구총무원장 도원사

주지 진철 총무 다선 신도회장 오찬열 두손모음
061)372-1047 / 010-6258-8325. 010-4433-0506
계좌번호 : (우체국) 500173-02-030214 (예금주 : 도원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정, 각종 불공의식 등)
 - ④ 재의식편 (천도제,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